

The History and Transformation of Gangneung Dialect Speech Contests

Choi, Ju-won

First Author,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cjw10a@naver.com

Oh, Jun-ho

Corresponding Author,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ojh6407@naver.com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Gangneung Dialect Contest,” which began in 1994 under the sponsorship of Kangwon Ilbo. It explores the contest’s role in preserving and transmitting the Gangneung dialect and its cultural significance. The research aims to reveal its linguistic and heritage value within the context of regional cultural preservation.

Methods The study used documentary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organizer and the first winner. It verified the correct inaugural year as 1994 and traced the contest’s influence on founding the Gangneung Dialect Preservation Society. This organization contributed to research, publications, and the contest’s continued growth.

Conclusions The contest has evolved with social change, adding multicultural categories and online formats. It now serves as a platform connecting generations through social and historical narratives.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systematic record and suggests digital archiving for sustainable preservation.

Keywords Gangneung Dialect Contest; Gangneung Dialect; Gangneung Dialect Preservation Society; Language Preservation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5.10.312.005

Received: Sep. 20. 2025 ; Reviewed: Oct. 10. 2025 ; Accepted: Oct. 20. 2025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역사와 변천

최주원/오준호

목 차

1. 서론
2.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개요 및 발전 과정
3. 대회의 문화적 파급 효과와 사회적 의의
4. 대회의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
5. 마무리와 과제

1. 서론

1994년 <강원일보>의 주최로 시작된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강릉 고유의 언어 자산인 ‘강릉말’의 보존과 계승을 목표로 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서 지난 30여 년간 지역 방언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핵심이 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해당 경연대회는 강릉말 특유의 독특한 표현과 정서를 발굴하고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언어 다양성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지역 언어 보존을 바탕으로 30년 이상 개최되었음에도 선행 연구는 대부분 영동 방언의 언어학적 특징·강릉단오제의 문화적 가치·방언 활용 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¹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1 강정희(2010). 지역어 자원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방안. 어문론총, 53, 한국문학언어학회; 김옥영(2021). 민속어휘의 단어형성 - 강릉방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95, 국어국문학회; 박병규, 김미연, 오치옥 (2024). 사투리 문화상품의 매력이 지역이미지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문화, 11(3), 한국지역

적 변천 과정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연대회 자체의 학술적 연구는 부재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합하고, 이후 대회 발전의 흐름과 사회·문화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자체적인 아카이브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회 수상자 및 경연 내용, 대회 주최 및 진행에 관련된 기본적 자료 등 관련 자료가 모두 파편화되어 해당 대회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명확한 자료의 부재와 기록의 모호성으로 인해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시작과 관련된 정보마저 오류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경연대회는 1994년에 시작되었음에도 1993년에 초회로 개최되었다는 오류가 널리 퍼져 있으며, 심지어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강릉단오제 공식 사이트와 각종 온라인 사이트, 사투리 경연대회를 보도하는 기사에서도 이러한 오정보가 인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경연대회에 대한 정보의 공백과 오류를 바로잡고, 경연대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취합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기존 기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그 정체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지난 30여 년간 해당 대회가 어떠한 변천사를 거쳤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근간이 되는 초회 개최 연도를 확립하고, 오늘날까지의 대회 관련 기록정보를 아카이빙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이를 위해 대회 관련 인물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자세히 조사하여 정리 및 기록하고자 한다. 또한, 대회의 주최 및 후원 구조, 경연의 형식과 장소 등 운영 체계의 변천 과정을 조사하고, 역대 수상자와 경연 내용의 특색을 정리하여 대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과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를 통해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현황과 발전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다.

문화학회; 박성호(2022).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방언콘텐츠 개발 방안. 국어문학, 80, 국어문화회; 이노미(2021). 라디오 매체에 나타난 강릉 지역어의 사용양상과 특성 연구: 강원영동MBC ‘오묘한 사투리의 세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9(3),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민현주, 이지설(2023). 주민참여형 축제 ‘강릉 단오제’의 속성과 과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7(7),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이재석, 강상국, 백주아(2024). 문화축제의 성공요인: 2023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본 품질과 만족도. 서비스연구, 14(4),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개요 및 발전 과정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강릉단오제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대표 행사로, 고유의 언어 자산인 ‘강릉말’의 보존과 계승을 목표로 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이다. 이 대회는 평범한 언어 경연이 아닌, 강릉 사투리가 지닌 독특한 표현과 정서를 발굴하고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언어 다양성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어와 구별되는 어휘와 억양을 통해 지역민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는 강릉 사투리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로 전승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1994년에 시작되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장구한 역사는 이 대회가 일회성 행사에서 강릉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2.1.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초회 개최 연도 불분명성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연혁은 공식적인 기록 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그 시작점에 대한 여러 혼선을 빚어왔다. 이로 인해 대회의 초회 개최 연도가 1994년임에도 불구하고, 강릉단오제 공식 홈페이지²,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강릉문화대전³ 및 다수의 언론 기사에서 1993년으로 잘못 기재되어 정보의 오용이 반복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⁴ 따라서 본고는 파편화된 기록 속 오류를 바로잡고 대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문헌 자료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는 교차검증을 통해 초회 개최 연도가 1994년임을 확립하였다.

먼저, 경연대회가 강릉단오제의 부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작성한 ‘행사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3년 자료의 행사 내용 및 세입내역에서

2 「강릉사투리 경연대회」, 강릉단오제, (<https://www.danojefestival.or.kr/dano/066.asp>), “1993년에 처음 개최하여 30여 년간 강릉단오제의 백미로 자리매김한 유서 깊은 행사.”로 기재되어 있다.

3 「강릉사투리 경연대회」, 디지털강릉문화대전, (<https://www.grandculture.net/gangneung/toc/GC00306211>), “1993년부터 강원일보사가 주최하여 열리는 강릉사투리 경연대회.”로 기재되어 있다. (문의를 통하여 2025년 7월 23일자로 [정의], [연원 및 개최 경위], [현황] 1993년→1994년 6월 12일로 수정되었다.)

4 유형재. (2025년 7월 8일). 강릉서 펼쳐지는 팔도의 말맛 ‘사투리는 못 참지’ 특별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8135600062?input=1195m>; 박현우. (2025년 6월 7일). “다 같은 한국 어랑게”...전국 곳곳 ‘사투리 살리기’ 프로젝트.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250606580078>; 류석우. (2024년 2월 1일). 퇴계 이황부터 ‘텃말’까지... 표준어에 맞선 사람들.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033.html.

는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⁵ 반면 1994년 자료에서는 ‘나. 민속행사’란에 대회가 정식으로 기재되었고, 세입 자료 역시 강원일보사의 지원금 산출 기초가 사투리 경연대회임을 명시하고 있어 1994년이 시초임을 증명하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⁶

그러나, 1993년도에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가 단순히 강릉단오제의 부대 행사로 운영된 것이 아닌, 주최사인 강원일보 독자적으로 대회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경연대회를 주관하는 <강원일보> 강릉 본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자료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강원일보> 측은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가 1993년에 처음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잘못 기재된 것이며, 1994년 6월 12일에 제1회 대회를 개최한 것이 사실이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마지막으로, 1994년 제1회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수상자 심명숙과 심충 인터뷰를 통해 최종 교차검증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참여하였던 경연대회의 연도를 질의하였고, 그는 “1994년도에 처음으로 열린 대회에 참가하여 금상을 받았고, 바로 다음 해인 1995년부터 대회 사회를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1994년이 첫 회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명확히 증언함으로써 세 갈래의 교차검증을 완료하였다.

강릉단오제위원회의 행사 결산자료, 주최사인 <강원일보>의 공식 확인, 초대 수상자의 증언이라는 다각적인 교차검증을 통해 ‘1993년 개최설’은 사실이 아니며, ‘1994년 초회 개최’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대회의 초회 개최 연도를 1994년으로 확립하였고, 이는 파편화된 기록 속에서 발생한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아 대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규명하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조직 및 운영 구조의 진화

<표 1>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연도별 주요 변화 요약표

연도	주요 주최기관	개최 장소	비고
1994년 (제1회)	강원일보사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 행사장 (수리마당)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첫 개최 및 제1회 대회 수상자 중심 모임 결성
2000년 (제7회)			강릉사투리보존회 창립
2007년 (제14회)			강릉사투리보존회 사단법인 공식 출범 주간 행사에서 야간 행사로 전환

5 강릉단오제위원회(1993).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강릉단오제 1993년 행사 결산자료.

6 강릉단오제위원회(1994).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강릉단오제 1994년 행사 결산자료.

2008년 (제15회)	강원일보사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 행사장 (수리마당)	사투리 시 낭송회 도입
2010년 (제17회)			국립국어원장상 신설
2013년 (제20회)			20주년 맞아 다문화가정 부문 신설 및 3부작 (이야기, 경연, 토크쇼) 구성
2015년 (제22회)			강릉 단오문화관 메르스 사태로 단오제와 별도로 하반기에 축소 개최
2017년 (제24회)			강릉단오제 행사장 (수리마당) 경연대회 실황 DVD 제작 및 무료 배포
2020년~ 2021년 (제27-28회)		온라인 (강원일보 유튜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최초 비대면 온라인 경연으로 전환
2022년 (제29회)	강원일보사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 행사장 (수리마당)	오프라인 정상 개최. 강릉사투리보존회 회원과 출연자가 짝을 이뤄 진행하는 방식 도입.
2024년 (제31회)			국립한글박물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사투리 이야기 콘서트' 공동 개최
2025년 (제32회)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특별 출연 및 특별상 수상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1994년 <강원일보>와 강릉단오제위원회 공동 주최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강릉사투리보존회, 국립한글박물관, 국립국어원 등 다양한 언어 관련 기관이 후원 단체로 참여하며 대회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이 점차 강화되었다.⁷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강릉단오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경연대회가 ‘(사)강릉말(사투리)보존회’(이하 보존회)라는 전문 조직이 탄생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1994년에 제1회 강릉 사투리 대회의 수상자들이 ‘강릉 사투리 대회 수상자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된 이 자생적 모임은, 2000년 4월에 지역의 향토사학자 및 언어학자들과 연대하여 “강릉사투리보존회”로 정식 창립하였다. 마침내 2007년 3월에는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하여 공신력과 실행력을 갖춘 전문 단체로 거듭났다.⁸ 이러한 보존회의 역할은 행사 기획 단계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참가자 모집과 홍보 활동의 지원 및 참가자를 위한 원고 작성법이나 사투리 발성법 등을 지도하는 교육

7 강원일보. (2025년 5월 12일). [알립니다] 제32회 강릉사투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강원일보.

8 강민주. (2024년 9월 24일). “안녕하시우야. 데우 반갑소야” 강릉말은 옛말 흔적 가득한 ‘보물섬’. 노컷뉴스.

을 진행하기도 하는 것이다.⁹ 대회의 참가자들이 결성하여 탄생한 조직이 해당 경연대회의 공식 후원 기관이자 사실상의 공동 주관자로서 대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경연대회가 단순한 유희나 오락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선순환과 지역민들의 교류, 사회·문화적 파급력의 확장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더 나아가, 보존회는 ‘강릉 사투리 자료 수집, 자료 출판 및 교육적 자료 연구, 강릉 사투리 대중화’라는 핵심 사업을 이행하며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27년간의 노력을 집대성하여 김인기가 편찬한 『강릉방언대사전』이 보존회의 가장 기념비적인 학술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2006년에는 역대 경연 실황을 담은 CD를 발간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윤동주, 김영랑 시인 등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시 작품들을 강릉 사투리로 재해석하여 전시하는 ‘강릉 사투리 시화전’을 개최했다.¹⁰ 2010년에는 국내 유명 시와 시조 등 59편을 강릉 사투리로 번역해 묶은 시집 『감재 담은 바수가리』와 2011년 강릉 사투리 유머집 『낮췄요 상구두 췄쇼』를 발간하는 등 강릉 사투리 관련 자료의 발간 및 기록화를 진행하고 있다.¹¹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강릉 사투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학술 세미나와 대중과의 소통으로 진행되는 유쾌한 토크쇼 ‘강릉 왓달계’, 강릉 사투리를 홍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놀람절’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며¹² 강릉 사투리의 언어학적 가치를 조명하고 대중적 흥미를 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보존회의 활동은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학술적·문화적 기반이 되어, 대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2.3. 대회 운영 방식의 상세 변천

대회의 운영 방식 역시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 기간 중, 강릉 남대천 단오장 내에 마련된 수리마당에서 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이후에도 해당 방식이 개최 시기와 장소의 기준점으로 작용하며 단오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

9 오윤주. (2019년 10월 20일). 훈민정음 흔적 남은 강릉 사투리 빠르게 사라져. 한겨레.

10 조상원. (2008년 10월 2일). 강릉사투리보존회 ‘강릉사투리 시화전’. 강원일보.

11 정익기. (2010년 6월 9일). 강릉사투리 시집 초판 열흘 만에 동나. 강원일보.

12 조상원. (2012년 10월 22일). 강릉사투리 토크쇼 인기 만점. 강원일보.

다. 개방된 공간인 단오장에서 개최는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며 대회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기반 아래에서 2007년부터는 주간 행사에서 야간 공연으로의 전환을 통해 더 많은 직장인이나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성장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연의 성공을 위해 변화해 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단오제가 축소되었을 때는 강릉단오문화관으로 장소를 옮겨 하반기에 별도로 개최하거나¹³, 2020년 및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에는 온라인 동영상 경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등 외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¹⁴

대회의 참여 자격은 특정 계층이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으며, 강릉 사투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외국인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포용성으로 유치원생부터 100세가 넘는 어르신, 다문화 가족, 심지어 현직 도지사까지 무대에 오르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왔다. 홍보 전략에서도 초기에는 지역 신문, 포스터 또는 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에 집중했으나, 점차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현재는 주최사인 강원일보의 지면과 홈페이지는 물론, 강릉단오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대회 요강과 참가신청서를 공지한다. 또한, 본선 경연을 유튜브 채널 ‘강원일보TV’ 등을 통해, 대회 전체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매체를 다각화하여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¹⁵

경연의 형식은 초기 콩트, 노래, 연설 등 자유로운 형태에서 출발하여, 시대의 흐름과 관객의 요구에 맞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발전했다. 초기에는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형식을 정해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문학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사투리 시 낭송회’를 도입하며 사투리가 일상 언어를 넘어 예술적 표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사투리 CF’를 연기하는 코너를 도입하는 등, 대중문화 흐름을 반영하여 대회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¹⁶ 2013년, 대회 20회를 맞아서 더욱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특별 부문을 마련하고, 역대 수상자들이 함께하는 토크쇼를 결합하는 등 3부 구성의 새로운 구성을 선보였다.¹⁷ 이는 강릉 사투리가 기존 지역민만의 언어에서 확장되어 모든

13 강릉시청. (2015년 12월 14일). 강릉가자!! 2015년 강릉사투리대회.

14 조상원. (2020년 6월 25일). 온라인 강릉사투리경연대회 조이재 할머니 대상. 강원일보.

15 강원일보. (2024년 6월 13일). [현장영상] 2024 강릉단오제 제31회 강릉사투리 경연대회 풀영상. 강원일보.

16 강원일보. (2009년 5월 29일). 강릉사투리경연대회 이모저모. 강원일보.

17 조상원. (2013년 6월 12일). [강릉] 다문화 며느리의 애환 강릉사투리로 전해요. 강원일보.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고 포용하는 통합의 언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변화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대회를 온라인 동영상 경연으로 신속히 전환했다. 참가자들은 개인 SNS에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경연 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 능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와 확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¹⁸ 2022년에는 팬데믹의 종식으로 다시 오프라인에 복귀하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다. 보존회 회원과 참가자가 한 팀을 이루어 경연을 준비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세대 간 전승 효과의 향상을 도모했고, 이와 함께, 언어학자와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투리 구사 능력, 내용 구성, 관객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등 대회의 발전을 다방면에서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⁹



〈사진 1〉 2025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출처: 강릉시청



〈사진 2〉 2023 강릉사투리 경연대회 영상
출처: MBC 강원영동 유튜브

2.4. 수상자 및 경연내용 분석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지난 30여 년간 강릉 지역의 언어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대회를 통해 수많은 수상자가 배출되었으며, 그들이 풀어내는 이야기는 강릉 사람들의 삶과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18 조상원. (2020년 6월 25일). 온라인 강릉사투리경연대회 조이재 할머니 대상. 강원일보.

19 조상원. (2022년 6월 20일). 구수한 사투리로 맛깔스럽게 되살아난 강릉말. 강원일보.

〈표 2〉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역대 수상자 정리표

연도	회차	대상 수상자	경연 내용
1994년	제1회	평창군 덕거초교	대가족이 단풍 구경을 다녀오는 상황을 담은 연극
1995년	제2회	전정자	어릴 적 시장에서 총동구매로 인해 할머니한테 혼난 이야기
1996년	제3회	함규식, 이상현	강릉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1997년	제4회	권유강, 김상래	강릉 사투리를 활용한 콩트
1998년	제5회	주종원	어릴 적 사천에 난 불을 소방서에 신고한 이야기
1999년	제6회	권정자	어린 시절 있었던 추억 이야기
2000년	제7회	서하정	심부름을 다녀오다 집에 불이 난 이야기
2001년	제8회	이유진	초등학교 반장 선거 이야기
		최현영	사과 장수가 장에서 흥정하는 이야기
2002년	제9회	강릉 옥천초등학교 (안홍산 외 4명)	초교 동창회에서 추억을 회상하는 이야기
2003년	제10회	강릉 주문진초등학교 (정수민 외 4명)	개그콘서트 코너 중 하나인 '생활 사투리'를 강릉 사투리로 패러디한 이야기
2004년	제11회	박영연	말 안 듣는 아이를 쪽으로 뜯을 뺐던 이야기
2005년	제12회	허성령, 김민경	독도의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
2006년	제13회	손병민, 손병호	축구를 즐기는 어머니와 두 아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담은 이야기
2007년	제14회	조경미	2014 평창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기원하는 이야기
2008년	제15회	방춘순, 유선기	무릎과 오금이 아파서 병원에 갔으나 강릉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의사를 만난 이야기
2009년	제16회	장성선	본인이 직접 농사해서 기른 농작물 이야기
2010년	제17회	홍귀자	가난 때문에 학창 시절 따돌림당했던 이야기
2011년	제18회	전여빈	학창 시절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 있었던 이야기
2012년	제19회	장순덕	시집와서 모심기하던 날 모밭을 해가다 실수한 이야기
2013년	제20회	심유섭	감 따다 십년감수한 이야기
2014년	제21회	주재남	50년 전 추억에 관한 이야기
2015년	제22회	김춘자	시아버지와 농사짓던 이야기
2016년	제23회	김영기	자신의 일대기와 구전동요에 관한 이야기
2017년	제24회	김옥순	7남매를 키운 가슴 뭉클한 이야기
2018년	제25회	정병희	어린 시절 조청을 훔쳐 먹다 도망가고, 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불을 냈던 이야기
2019년	제26회	최옥선	죽을 고비 두 번 넘긴 이야기
2020년	제27회	조이재	어린 시절 단오 추억에 관한 이야기
2021년	제28회	홍귀남	일상생활 속 사투리에 관한 이야기
2022년	제29회	이옥순	1년간 7~8차례 제사를 지낸 이야기
2023년	제30회	최재화, 권정자	경로당에서 일어난 이야기
2024년	제31회	강릉 동부어린이집	강릉 사투리로 전래동화 '홍부놀부'를 각색한 연극
2025년	제32회	조월자	쌀 다섯 말로 가족이 살아낸 이야기

주요 수상자로는 강릉 사투리를 특기로 활용하여 명성을 얻은 18회 수상자 배우 전여빈이 있다. 그는 2011년 대회에서 ‘좌충우돌 나의 성장기’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강릉 사투리로 풀어냄으로써 대상을 받았고,²⁰ 추후 유명 배우로 성장하게 되면서 대상 수상 이야기가 알려지자, 이 일화 자체가 화제가 되어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얻으며 그 위상이 기존보다 더 높아지기도 했다.²¹ 또한, 2024년에는 동부어린이집 원아 강로진, 이현승이 ‘홍부놀부’ 이야기로 대상을 차지하며 사투리의 세대 간 전승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 밖에도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대회의 폭넓은 참여를 증명했다.

경연의 내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기에는 ‘시아버지와 농사짓던 얘기’, ‘고부 갈등’과 같은 개인의 삶과 가족의 희로애락을 다룬 진솔한 이야기나 전래동화, 시, 노래를 강릉 사투리로 바꾸어 낭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 듣는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대회의 기반을 이루었다. 이후의 경연 내용은 점차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캠페인 내용이 등장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아쉬움과 단오의 추억을 풀어내는 등 시대적 상황을 주제로 삼았다. 최근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울곡 이이 십만양병설’을 주제로 특별 출연하는 등 역사적 소재까지 아우르며 대회의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²²

이러한 경연 내용의 변화는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가 지닌 독특한 특색을 잘 보여준다. 이 대회는 사라져가는 방언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언어를 매개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문화의 장으로 기능한다. 참가자들은 평범한 구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콩트, 뮤지컬, 노래 등 다채로운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사투리가 지닌 언어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사투리를 어린이와 청년 세대가 새롭게 해석하고 즐기는 무대가 되면서,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세대를 잇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축제의 중심으로 작동하게 됐다.

20 조상원. (2011년 6월 8일). 강릉사투리경연대회 대상에 전여빈(동덕여대)씨. 강원일보.

21 허지형. (2021년 7월 3일). ‘놀면 뭐하니’ 전여빈, ‘사투리 대상’ 특이한 이력… 어머니 때문에 출전. 셀럽미디어.

22 권태명. (2025년 6월 1일). [포토뉴스] 제32회 강릉사투리 경연대회. 강원일보.

3. 대회의 문화적 파급 효과와 사회적 의의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사회에 심층적·다층적 파급 효과를 낳으며 그 의의를 증명해 왔다. 대회는 언어 보존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넘어 학술 연구 토대 제공, 공동체 정체성의 강화, 그리고 문화 콘텐츠로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광범위하게 확장해 왔다.

대회의 주요한 학술적 성과 중 하나는 사라져가는 구술 언어인 강릉 사투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기록화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경연대회는 언어학자나 민속학자에게 강릉 사투리의 사용 방식과 발화 양상을 관찰하고 수집할 수 있는 생생한 학술적 환경을 제공했다. 매년 수많은 참가자가 무대 위에서 펼쳐내는 다채로운 이야기는 귀중한 1차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학술적 관심 아래 보존회는 『강릉방언대사전』 편찬이라는 학술적인 자료 집을 편찬할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강릉사투리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대중적 관심을 전문적인 학술 연구로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²³ 이 외에도 경연대회에서 발표된 이야기와 시 낭송 등을 모아 제작한 『감재 담은 바수가리』 등의 사투리 시집·동화책을 발간하고, 역대 경연 실황을 담은 CD(2006년) 및 DVD(2017년)를 제작하여 보급했다.²⁴ 특히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대회는 의도치 않게 모든 경연 영상을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결과를 낳았다.²⁵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영상 아카이브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향후 체계적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핵심적인 파급 효과는 무엇보다 대회가 배출한 수상자들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수상은 단순한 경연의 마무리가 아니라, 사투리 보존과 전승이라는 새로운 역할의 시작을 의미한다. (사)강릉말(사투리)보존회의 주요 회원이 된 수상자들은 지역 내외의 각종 축제와 행사에 초청되어 사투리 공연을 선보이며 대중과 소통한다. 예를 들어, 강릉에서 진행한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찾아가는 사투리 이야기 콘서트’에 1회 금상 수상자 심명숙과 2회 대상 수상자 권정자 등이 강연자로 참여하여 강릉 사투리로 강릉 대표 음식에 대해

23 구정민. (2019년 10월 19일). 오늘 강릉사투리 학술세미나. 강원도민일보.

24 원선영. (2010년 6월 15일). 이 말이 강릉사투리잖소!. 강원일보.

25 조상원. (2020년 6월 25일).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조이재 할머니 대상. 강원일보.

강의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²⁶ 이는 지역 사회에서 경연대회 수상자가 사투리 및 전통 문화 전파의 중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는 근거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강릉 사투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상자 개인에게는 ‘시민 스타’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기회가 된다.

나아가 수상자들은 교육 및 전승 활동의 주체로 활약한다. 이들은 ‘강릉 사투리 도전 골든벨’과 같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멘토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미래 세대에게 직접 전달한다.²⁷ 특히 2008년 대상 수상자 유선기는 여러 시선으로 바라보는 강릉의 모습을 담은 책 『강릉이래요』를 발간하고, 강릉 문화관광해설사로서도 활동하는 등 강릉 사투리와 연관되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2022년 금상 수상자인 김동철은 개인적으로 연구해 온 자료를 모아 『한민족의 얼 아리랑 그리고 사투리』라는 책을 출간하는 등 개별적인 학술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²⁸ 이러한 개별적 활동이 축적되면서 수상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점차 확대된다. 강릉 사투리를 보존하고 전파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존경을 받게 된 이들의 목소리는 지역어 정책에 대한 중요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²⁹ 결과적으로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지역 언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진 인재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강릉 사투리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 3〉 찾아가는 사투리 이야기 콘서트
출처: 강원일보



〈사진 4〉 2024 강릉 사투리 도전 골든벨
출처: 강릉 교동초등학교 홈페이지

26 정익기. (2024년 6월 10일). 찾아가는 사투리 이야기: 마커 강릉말로 지거레 콘서트 성황. 강원일보.
 27 황선우. (2024년 11월 6일). 강릉 사투리 마음 깊이 새기며 전승·보존. 강원도민일보.
 28 류석우. (2024년 2월 1일). 퇴계 이황부터 ‘뱃말’까지…표준어에 맞선 사람들. 한겨레.
 29 최성식. (2024년 10월 10일). 여가 강릉이잖소: 강릉말을 지키는 사람들. 헬로티비뉴스.

4. 대회의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미래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점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는 체계적인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과 공식 플랫폼의 부재 해결이다. 현재 경연대회의 역대 수상자 정보 및 공연 내용, 영상 자료 등은 여러 언론사 웹사이트와 개인 유튜브 채널 등에 파편화되어, 연구자나 대회에 관심 있는 시민이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경연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일부 아카이빙된 것은 사실이나, 업로드의 주체가 강원일보, 강릉단오제위원회, 개인 참가자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검색이 용이하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언어적, 문화적 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관련 자료가 유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존회나 강릉단오제위원회를 주체로 하는 독립된 공식 홈페이지나 통합 플랫폼의 개설을 제언한다. 해당 플랫폼의 개설을 통해 역대 수상자와 공연 내용을 담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도별, 수상자별,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누구나 쉽게 대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 대회에 대한 홍보 및 관심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체계적인 아카이빙과 함께 대회의 참여층 확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전략의 향상 방안 수립 역시 중대한 개선점으로 요구된다. 현재 홍보 방식은 주최사의 신문 기사나 홈페이지 공지에만 의존하고 있어 그 파급력에 한계가 있다. 대회의 상징성을 담은 공식 포스터조차 찾아보기 어려우며, 젊은 세대를 겨냥한 소셜미디어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참가 신청 안내가 신문 지면이나 공지사항에 간략하게 기술되는 경우가 다분하여 대회에 처음 참가하고자 하는 예비 참가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³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최 수개월 전부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공식 SNS 채널을 개설하여 역대 수상자 인터뷰, 경연 준비 과정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참가 방법을 카드 뉴스나 숏폼(Short-form) 형식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회의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쉽고 편하게 경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시민들의 참여를

30 강원일보. (2025년 5월 12일). [알립니다] 제32회 강릉사투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강원일보.

독려하는 적극적인 소통 전략은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가 단순히 과거의 성과 보존을 넘어, 미래에까지 활발하게 이어지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5. 마무리와 과제

본고는 1994년 <강원일보> 주최로 시작된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30여 년간 역사적 변천 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그 사회문화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간에 잘못 알려져 있던 대회의 초회 개최 연도 오류를 바로잡고, 파편적으로만 존재하던 대회 관련 자료들을 통해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개선점을 제언하는 것에 그 주요 목적이 있다.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단순히 사라져가는 지역어를 보존하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의 언어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적 동력을 창출하며 시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의 살아있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에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회의 주최 및 후원 구조, 경연의 형식과 장소 등 운영 체계의 변천 과정과 역대 수상자 및 경연 내용의 특색을 분석한 결과, 언론사의 주도로 시작된 본 대회는 자생적인 ‘강릉말(사투리)보존회’ 결성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다문화 포용 및 온라인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운영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립해 왔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그 과정에서의 경연 내용은 개인의 서사에서 사회적 담론, 나아가 역사적 소재까지 확장됨과 동시에 유치원생부터 100세가 넘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여러 언론 보도와 기관 자료에 흩어져 있던 대회의 정보를 심층 인터뷰와 면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회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잘못 알려진 개최 연도 정보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에 관한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강점을 갖추리라 예측된다. 이는 향후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 귀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타 지역의 언어 보존 활동에도 구체적인 사례 연구의 토대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언어가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전통을 지켜나가면서도 동시에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발전 경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지역 언어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전승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구축된 아카이빙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는 분석과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Gangneung Danoje Committee(1993-2001). Reports on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angneung Danoje Festival.
- Gangneung Danoje Committee(2002-2007). Annual Reports on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 Kang, Jung-Hee(2010). A plan for transforming local language resources into cultural contents. *Eomunronchong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53. The Korean Society of Literature and Language.
- Kangwon Ilbo. <https://www.kwnews.co.kr>
- Kim, Ok-Young(2021). Word formation of folk vocabulary: Focusing on the Gangneung dialect]. *Kugeo Kugmunhak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95.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Lee, Jae-Seok., Kang, Sang-Kook., & Baek, Ju-Ah(2024). Success factors of cultural festivals: Quality and satisfaction in the 2023 Gangneung Danoje]. *Service Research*, 14(4). Korean Service Management Association.
- Lee, No-Mi(2021). A study on the usage and characteristics of the Gangneung dialect in radio media: Focusing on KBS Yeongdong MBC's "World of Mysterious Dialects". *Communication Studies*, 29(3). Korean Society for Communication Studies.
- Min, Hyun-Ju., & Lee, Ji-Seol(2023). Attributes and tasks of the resident-participatory festival "Gangneung Danoje".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7(7).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 Park, Byung-Kyu., Kim, Mi-Yeon., & Oh, Chi-Ok(2024). The effect of dialect cultural products on regional image and revisit intention. *Jiyeok gwa Munhwa Region and Culture*, 11(3). Korean Society of Regional Culture.
- Park, Sung-Ho(2022). Developing dialect contents for overcoming regional crisis. *Kugeo Munhak Korean Literature*, 80. The Society of Korean Literature.

사투리 경연대회와 역사의 변천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최주원

강원대학교 국문과 대학원생(제1저자)

오준호

강원대학교 국문과 대학원생(교신저자)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994년 강원일보 주최로 시작되어 30여 년간 지속된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 사회·문화적 의의를 규명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이 경연대회는 지역 언어의 보존과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대회 자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 방법 문헌 자료 분석과 함께 주최 기관인 강원일보 및 초대 수상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초회 개최 연도가 1993년으로 알려졌던 오류를 바로잡아 1994년임을 규명하였다. 또한, 경연대회가 「(사)강릉말(사투리)보존회」의 탄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보존회가 대회의 질적 성장과 학술 연구 및 자료 출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다문화가정 부문 신설, 온라인 경연 도입 등 유연하게 발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의 내용 또한 개인적 서사에서 사회적·역사적 담론으로 확장되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는 흩어져 있던 자료를 종합하고 오류를 교정함으로써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기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나아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홍보 전략의 다각화를 미래 과제로 제시하여, 본 대회가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방향을 제안한다.

핵심어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강릉 사투리, (사)강릉말 사투리 보존회, 언어 보존

이 논문은 2025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